

2007. 3.

수 신 : 제천시의회회장

제 목 : 「교사인사제도」 개선 건의안

위의 건의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별 첨 : 1. 의원서명서 1부.



2. 「교사인사제도」 개선 건의안 1부.

발의자 : 박성하 의원 (인)

외 2인

(찬성자 서명 별첨)

「교사인사제도」 개선 건의안 발 의 서 명 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박 성 하		
이 병 장		
조 석 희	조 석 희	

「교사인사제도」 개선 건의안

의안 번호	1138
----------	------

발의연월일 : 2007. 3. .

발 의 자 : 박성하의원외 2인

1. 주 문

- 교사들의 근무회피 지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회피지역 장기근속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교사 전보내신 제출 근무연한 조정 및 교과별 우수 신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의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토록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전보내신 제출, 근무연한을 3년~5년으로 조정
 - 교육인적자원이 풍부한 청주 전역에 기간제 교사 발령 비율 높이고, 충북 북부지역은 정규교사 발령 비율 상향 조정
- 교사 근무 회피지역에는 교사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이유

- 충청북도 교육청은 2007. 3. 1일자 정기인사시 제천시 초·중·고교에 77명의 신규발령을 하면서 이중 중학교에 24명을 신규발령하여 전체 교원 대비 30%를 상회하는 인사 단행
- 기간제 교사를 중학교에 14명, 고등학교에 14명 총 28명을 제천시 관내 중등교사로 발령하여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제천시의 지역상황을 무색케하는 인사 발령으로 제천시 홀대

「교사인사제도」 개선 건의문

- 편중된 교육인사발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옵는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감님!

세계 최고교육을 지향하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발전을 위하여 중단 없는 교육혁신을 통하여 이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인재양성은 향후 지역발전을 판가름하는 원동력이며 그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이 시대가 신뢰 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육자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교육자 배치가 선 조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제천시 관내 초·중·고 학교에 77명의 신규 교사를 발령 이중 중학교에 24명 신규 발령하여 전체교원대비 30%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기간제교사를 중학교에 14명, 고등학교에 14명 총28명을 제천시 관내 중등교사로 발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규발령이나 기간제교사 발령상황은 도내 타시·군과 비교시 도내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치로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전 시민이 지역교육발전으로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현 지역상황을 무색케 하는 인사발령임에 우리 제천시의회는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 하오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교사들의 근무회피 지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천지역의 경우 근무회피망자는 적고 전출회피망자는 많아 전·출입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신규발령이나 기간제교사 발령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상황인바, 지역사회학교근무 가산 점 상향 조정 또는 근무회피지역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역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교사 전보내신제출 근무연한조정 및 교과별 우수 신규교사 및 기간제교사의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토록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사관리규정으로 되어있는 교사 전보내신 제출 근무연한을 1년—5년에서 3년—5년으로 개정, 발령 후 최소 근무 년 수 조정으로 근무회피지역에 교육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과별 우수 신규교사 기간제교사 발령 시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지역에 편중 집중 발령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제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이 풍부한 청주권역에는 기간제교사 발령비율을 높이는 반면 인적자원이 빈약한 충북 북부권역에는 정교사 발령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시어 본 사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교사 근무회피지역에는 교사 후생복지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우수한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근무 회피지역에는 근무희망자와 전출희망자의 불균형으로 지역미래를 책임지는 지역교육의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교사 후생복지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교사들의 생활불편사항 해소로 그 지역에서 생활의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함으로써 지역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교사근무회피지역에서도 타 지역과 같이 형평성에 근거한 우수한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고 더 나아가 근무회피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장기근속교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미래를 여는 청소년들이 교육의 수혜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제천시의회 전의원은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 하오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3. 23.
제천시의회의원일동